안방극장 달구는 '미스터 션샤인'…간접광고까지 뜨겁다

'불란셔 제빵소' '달콤커피'…이게 PPL이었소?

시대극에 맞게 등장 '또 다른 볼거리'
시청자들 '숨겨진 PPL 찾아라' 호응
광고업체들 드라마 관련상품 출시도

'미스터 션샤인'은 시대극이라는 상업적 한계의 선을 절묘하게 넘나들며 PPL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병헌이 '가배'로 불리는 커피를 마시는 장면(왼쪽사진)과 '불란셔 제빵소' 문구가 나오는 장면에 각각 달콤커피와 파리바게뜨의 간접광고가 등장한다. 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시대극이라는 '상업적 한계'의 선을 절묘하게 넘나들며 간접광고(PPL)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모두 24부작인 '미스터 션샤인'이 12일 12회로 반환점을 돌아선 가운데 제빵제과, 커피, 액세서리, 가방 등 브랜드를 활용한 PPL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격변하는 구한말의 정세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라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이는 또 다른 볼거리로 다가온다.

'미스터 션샤인'은 극중 '불란셔 제빵소'를 비롯해 '가배'로 불린 커피, 핸드백과 찻잔, 노리개 등 관련 소품들을 통해 PPL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브랜드로는 파리바게뜨와 달콤커피, 제이에스티나 등이 꼽힌다.

현대의 제품과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시대극의 특성상 이들 제품을 활용한 소품과 공간 등은 극중 시간적 배경에 걸맞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불란셔 제빵소'라는 이름의 제과점 속에 자사 브랜드로고 등을 노출하고 있다. 달콤커피는 구한말 근대문명의 상징처럼 비치는 극중 호텔의 커피숍 벽과 플레이트 매트 등에 영문 로고를 새겨 놓았다.

'미스터 션샤인'의 이 같은 PPL 활용은 많은 현대극이 제작비 충당을 위해 과다하게 노출해 비판받아온 상황에서도 거리가 멀다. 오로지 PPL 노출을 위해 작위적인 설정을 드러내온 것과 달리 그 자체로도 시청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는 매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들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한 소품을 찾아내는 재미를 즐기고 있다. 각 브랜드 업체들은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얻은 관심을 적극 활용해 관련 신규 상품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tvN 방영권을 비롯해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판권 계약 등으로 이미 430억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회수한 '미스터 션샤인' 제작진은 극중 자연스럽게 녹여낸 PPL과 그로 인한 시청효과 등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쌍천만 '신과함께'…한국형 마블시대 여나

영화 말미에 '새 귀인'…후속편 예고
'프랜차이즈 한국 영화' 새 흐름 기대

'신과함께-인과 연' 대만 프로모션에 나선 감독·배우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 사상 처음 시리즈 연속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함께'가 신기록을 넘어 향후 또 다른 이야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세계관 아래 익숙한 캐릭터를 앞세워 이야기를 확대하는 마블스튜디오의 흥행 전략이 '신과함께'를 통해 국내서도 시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과함께-인과 연'이 14일 누적관객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1편은 1441만 관객을 모아 역대 흥행영화 2위에 올라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 제기된 '신과함께' 3, 4편 제작 여부와 그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연출과 공동제작을 맡은 김용화 감독은 앞서 "대중영화인만큼 2편의 흥행 결과를 보고 3, 4편 제작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상태. 바람대로 2편까지 1000만 기록을 세우면서 제작진은 향후 시리즈 기획에 대한 명분과 여유를 확보했다.

물론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만큼 '신과함께' 3, 4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다. 그야말로 감독과 주연배우 등이 '의기투합'하는 단계. 제작진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제작진의 신중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과함께2'에는 후속편을 예고하는 강력한 '떡밥'이 다수 존재한다. 이미 관객도 전부 눈치 챘다. 대표적으로 염라대왕(이정재)이 수홍(김동욱)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하는 장면이다. 영화 말미 저승 앞에 도착한 원일병(도경수)을 향해 저승 삼차사가 "또 귀인이 왔다"며 다가서는 장면도 후속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노골적인 떡밥에 관객은 3, 4편 제작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신과함께' 흥행과 이어지는 3, 4편 제작 움직임은 한국 영화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도 향한다.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세계관 아래 이야기를 확장하는 프랜차이즈 영화가 '신과함께'를 기점으로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할리우드 대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는 마블스튜디오 영화를 향한 국내 관객의 절대적인 선호도가 증명된 상황에서 '신과함께'가 그 흐름을 이어갈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허남웅 영화평론가는 13일 "거대 배급사와 제작사로 확대되는 한국영화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과함께'처럼 검증된 프랜차이즈 영화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시리즈 제작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짚었다.

물론 신중론도 나온다. '신과함께' 1, 2편의 성공과 3, 4편 제작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지만 한 편에 머물지 않고 분위기를 이어갈 또 다른 영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평론가 역시 "다양하게 확대되기 위해선 한국영화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스토리'와 '캐릭터' 발굴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잊을만 하면 '아이돌 대학특혜' 왜?

입대 연기 위한 오래된 관행
학교측 홍보 위해 '검은 악수'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온다. 아이돌 가수들을 둘러싼 대학 특혜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그 중심에 있는 '병역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비스트 전 멤버인 윤두준, 용준형, 이기광, 장현승 등은 2010년 전남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진학 및 졸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별 탈 없이 졸업했다고 알려졌다. 이들 소속사 측은 "우려하는 것과 같이 입학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거나 학교생활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인 2010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나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순수한 학업에 대한 열의'가 아닌, 입대 연기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들에 앞서 빅뱅 지드래곤과 2AM의 멤버 조권, 씨엔블루의 정용화 등이 전공과목과 상관없는 석사과정을 밟거나 또 면접 없이 박사과정에 진학했다며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이들은 입대 연기를 위한 '꼼수'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스트 전 멤버들 역시 동신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경희사이버대학원, 중부대학교 대학원 등에 진학했다.

사실 연예계에서는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하면 학업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은 자동으로 입대가 연기되기 때문이다.

학교 측도 인기 아이돌 스타들을 통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해시태그 컷

터키여행 설현, 상큼한 미소

그룹 AOA 설현의 환한 미소가 햇살보다 밝다.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중인 그는 공원을 거닐며 산책 중이다. 설현의 뒤로 하늘과 구름, 나무, 꽃 등이 어우러져 그의 모습을 더욱 환하게 만든다. 꽃무늬 재킷까지 입고 있어 화려함 그 자체다. 팬들은 "꽃보다 아름답다", "해외에서도 빛나는 설현의 미모"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AOA #설현 #여행은즐거워

내마음에 작품하나

44 우주소녀 다원-영화 '아이스 프린세스'

피겨 꿈 이루는 과학영재 초심·열정 깨워주는 영화

찬바람과 얼음, 눈 등이 간절해지는 요즘이다. '이열치열'로 더위와 맞서도 좋지만, 보는 것만으로 더위가 반쯤 가신다면 이 또한 여름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

걸그룹 우주소녀 다원은 영화 '아이스 프린세스'를 통해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더위도 잊고 초심도 잡고!

2005년 개봉한 영화는 피겨스케이팅이 소재다. 하버드대학 진학을 꿈꾸는 과학영재 케이시(미셸 트라첸버그)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아이스스케이팅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직접 피겨스케이팅에 도전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물리학을 적용해 회전이나 점프를 연구하다가 훈련하면서 점차 피겨스케이팅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 자격까지 얻는다.

다원은 이 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자신도 새삼 초심을 돌아보게 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어릴 적 꿈꿔봤던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며 "피, 땀, 눈물 등이 밑거름이 되면서 차차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지면 거기서 얻는 희열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과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밀고나가는 끈기도 있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런 '열정'을 떠올렸다. 이제는 꿈꿔왔던 가수가 됐어도 이따금씩 힘에 버거울 때면 영화를 다시 찾아보고 초심을 되찾는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